

# 수·당의 교체 정국과 신라 불교계의 추이

김복순\*

- I. 머리말
- II. 수·당의 교체와 신라 유학승
- III.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으로의 변화와 신라 불교계의 행보
  - 1. 나당연합과 신라 승들의 활동
  - 2. 나당전쟁과 신라 불교계
- IV. 나당관계 재개 이후 안함의 평가와 사료의 착종
- V. 맺음말

---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수나라에 유학하였던 신라 승들이 신라로 귀국한 이후 벌인 활동이 신라 불교계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다. 신라는 6세기 말부터 7세기에 접어들면서 陳, 隋, 唐에 유학승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이는 새로운 사조의 유입에 신라가 백제나 고구려보다 적극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이들의 귀국 후의 활동으로 불교가 신라에서 사회사상으로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유학승들의 역할과 평가에 있어 안함의 예와 같이 사료의 착종 등 혼란스러운 내용만이 전설처럼 전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이들이 유학승이므로 신라의 대외관계에 주목할 필

---

\*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대표 논저 : 2002 『한국 고대 불교사 연구』, 民族社 ; 2005 「9-10세기 신라유학 승들의 중국 유학과 활동 배경」 『역사와 현실』56 ; 2005 「신라 중대의 불교」 『신라문화』25.

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신라는 진평왕 대인 6·7세기에 진, 수, 당의 교체에 따른 잦은 대외정국의 변화를 겪었을 뿐 아니라, 이후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으로, 그리고 대당관계의 재개라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잦은 정국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6·7세기 신라 유학승들의 활동과 신라 불교계의 상황을 수와 당의 교체 정국과, 나·당 연합에서 나·당 전쟁으로의 변화에 따른 신라 불교계의 행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신라가 수나 당과의 외교관계가 순탄했을 때와는 달리, 나당전쟁이라는 상황에 처해짐으로 해서, 원광과 안함, 자장 등을 계승한 명랑, 원효 등의 불교계 지식인들은 신라의 자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행보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당과의 관계가 다시 재개되면서 이들 가운데 수유학승에 대한 평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안함과 관련한 참서의 등장과 『삼국사기』와 최치원에 의한 사료의 착종과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추정된다.

그렇지만 수·당의 교체정국과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 나·당관계 정상화라는 변수 속에서도 신라인들의 자존의식이 當代의 고승들의 행보에 잘 드러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들은 신라를 호위하는 사상적인 축을 잘 지탱하고 있었다.

주제어 : 수당의 교체정국, 수유학승,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으로의 변화와 신라불교계, 나당관계의 재개와 안함의 평가

## I. 머리말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은 김춘추의 대당외교로부터 출발해서 주로 당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유교 치국책으로까지 연결지어 언급해 왔다. 그러나 김춘추 이전에 자장의 활동이 있었고, 그에 앞서 안함과 원광의 역할이 있었으나 이들을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 부족하였다. 또한 신라와 수나라와의 관계가 부각되지 않은 채, 당나라와 연결된 태종 무열왕의 유교정치이념에 대한 언급만 강조되어 왔으므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즉 『걸사표』에서 시작하여 백고좌법회, 황룡사 9층탑의 건립과 같은 불교계의 활동에서, 경흥을 거쳐, 명랑에 의한 문두루비법의 실행으로까지 연결시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수와 당의 교체 정국이 되기는 하였지만, 수대에 유학하였던 신라 승들이 귀국하여 펼친 활동이 신라 불교계의 기반을 이루었다는 점을 밝히려 하였다. 즉 신라는 6세기 말부터 7세기에 접어들면서 진, 수, 당에 유학승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새로운 사조의 유입에 백제나 고구려보다 적극적이었다. 특히 이들 유학승들이 귀국 이후 펼친 활동으로 불교가 신라의 사회사상으로 정착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 유학승들의 역할이 역사 속에 묻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이들의 생애와 평가에 있어 사료의 착종 등 혼란스러운 내용만이 전설처럼 전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안함의 경우가 특히 심하였다. 이에 이들이 유학승이라는 점에서 신라의 대외관계에 주목하였던 바, 신라는 진평왕 대인 6·7세기에 진, 수, 당의 교체에 따른 잦은 대외정국의 변화를 겪었을 뿐 아니라, 이후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으로 그리고 대당관계의 재개라는 커다란 변수들을 겪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잦은 정국의 변화가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시킨 것이 아닐까 하는 점에 착안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는 6·7세기 신라 유학승들의 활동과 신라 불교계의 상황을 수·당의 교체 정국과, 나·당 연합에서 나·당 전쟁으로의 변화에 따른 신라 불교계의 행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나·당 관계의 재개 이후 수 유학승들의 활동이 평가되는 과정에서 『삼국사기』와 최치원에 의한 사료의 착종이 있었음을 밝혀 보았다.

## II. 수·당의 교체와 신라 유학승

신라의 진평왕대(579~631)는 남조의 진(557~589)에서 수(581~618), 그리고 당(618~907)으로의 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7세기를 전후하여 진의 멸망에 이은 수의 통일로 정국이 바뀌면서 그 여파가 삼국에까지 미쳐 오게 되었다. 수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기는 하였으나(589), 신라는 관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백제가 개황 초(581) 수와의 관계를 개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인 것과는 달리,<sup>1)</sup> 신라는 진평왕 16년인 594년에 수와 수교하고 있다. 그것도 『수서』 「신라전」에는 개황 14년(594)에 진평왕이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치므로 수나라 고조가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을 삼았다고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평왕 16년(594)에 수에서 조서를 보내 왕을 봉하였으므로, 진평왕 18년(596)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sup>

그런데 신라는 진평왕 대에 지명, 원광, 담육, 안함 등이 진과 수에 유학하였다.<sup>3)</sup> 안함은 국비 유학승으로 다녀오고 있고, 진에 유학하였던 원광이나 지명도 수에 갔던 신라의 사신과 함께 귀국하고 있어, 이들은 넓은 범주에서 수유학승이라고 총칭할 수 있다. 이들이 수에 머문 기간을 보면, 대개 원광이 589~600년, 지명이 589~602년, 담육이 596~608년, 그리고 안함이 601~605년으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 수에

1)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 제5, 위덕왕 28년, 29년, 36년, 45년, 무왕, 8년 등의 기사와 『수서』 권81의 「백제전」의 내용으로 삼국 가운데 백제가 주로 隋와 수교한 것으로 보는 견해(김수태)와, 백제는 실지양단외교책으로, 隋와의 관계는 신라가 더욱 적극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노중국)로 나뉘어져 있다.

2) 『수서』 권81, 「신라전」에는 개황 14년에 진평왕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조공하므로 고조가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으로 삼았다고 한다.

3) 『삼국사기』 권4, 진평왕 7년(585) 秋7月 高僧 智明 入陳求法, 11년(589) 春3月 圓光 法師 入陳求法, 18년(596) 春3月 高僧 曇育 入隋求法 遣使如隋貢方物, 22년((600) 高僧 圓光 隨朝聘使 奈麻諸文 大舍橫川還, 24년(602) 9月 高僧 智明 隨入朝使上軍還 王尊敬明公戒行爲大德, 27년(608) 春3月 高僧曇育 隨入朝使惠文還, 『해동고승전』 권2, 「안함전」.

머물면서 불교사상과 문물을 익히고 귀국하고 있다. 때문에 신라로서는 진평왕 11년(589)부터 30년(608)까지가 중국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수에 『결사표』(608)를 보낸데 이어 수의 사신을 맞아 대규모의 호국법회를 열었는데, 신라가 수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을 때 벌인 행사로서, 진평왕 35년(613)에 개최된 황룡사의 백고좌회이다.

- 1) 수의 사신 王世儀가 황룡사에 이르니 백고좌를 설치하고 원광 등의 법사를 맞아다가 경을 설하였다.<sup>4)</sup>
- 2) 진평왕 35년 황룡사에 백좌회를 설치하고 비구를 맞아다가 강경하였는데, 원광법사가 上首가 되었다.<sup>5)</sup>
- 3) 건복 30년 계유 (즉 진평왕 즉위 35년이다) 가을에 수의 사신 王世儀가 오니, 황룡사에 백좌도량을 설치하고 여러 고승을 청해 경을 설하게 하였는데, 원광이 가장 上首에 자리하였다.<sup>6)</sup>

이 법회의 성격이 수와 관련된 호국법회인 점으로 볼 때, 수 유학승들이 이 행사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수와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수 유학승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도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법회를 볼 수 있으리라는 점이다.

수와의 수교에 신중하였던 신라였으나, 백제와의 아막성전투(602) 등에 이어, 고구려의 북한산성 침입(603)으로, 신라는 남천주를 폐하고 북한산주로 물러나는 등 위기를 맞게 되면서, 수와의 관계를 적극화하는

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평왕 35년 7월.

5) 『해동고승전』 권2, 「원광전」.

6)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진평왕은 수에 유학하였던 승려들을 활용하게 되었고, 불교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도 해박하여 외교문서를 초할 수 있는 원광을 왕경으로 초치하여,<sup>7)</sup> 결사표(608)를 쓰게 하였다. 왕경에 머무르고 있던 안함 등이 적극 천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611년 2월 신라의 북쪽 경계를 침략하여 8,000인을 사로잡아 갔고, 4월에 우명산성을 쳐서 빼앗기도 하였다.<sup>8)</sup> 이에 더하여 612년 수의 고구려 침입이 참패하자, 수에 협조해 온 신라로서는 고구려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전긍긍하였을 것이다.

이런 즈음 613년에 수의 사신 王世儀가 와서, 수의 계속되는 고구려 공격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신라의 민심안정을 위해, 황룡사에서 백고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 법회는 隋使 王世儀가 참석한 자리였던 만큼, 상수인 원광을 비롯하여 중국어에 능통하였을 지명, 안함, 담육도 참석하여 행사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이 법회가 『인왕경』을 강설한 호국법회로 열렸다는 사실은<sup>9)</sup>天台 智顓의 영향을 받은 수 유학생들에 의한 주도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인왕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으로 북조에서의 불교사태 이후, 불법 수호라는 측면에서 智顓와 不空에 의해 널리 선양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특히 진나라와 수나라 대의 『인왕경』 신앙의 최대 고취자이며 최초의 註疏家는 천태 지의였다.<sup>11)</sup> 지의는 진나라 지덕 3년인 585년부

7) 원광은 600년에 귀국하여 청도의 가솔사에 머물다가, 이 때 왕경으로 진출하였다고 보았다. 김복순, 2006 『원광법사의 행적에 대한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 28 참조.

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제4, 진평왕 34년.

9) 이기백, 1986 『황룡사와 그 창건』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pp.52~55.

10) 권기중, 2000 『수당시대 불교사상과 정치권력』 『인왕호국반야경』을 중심으로, 『역사상의 국가 권력과 종교』, 일조각, pp.142~145.

11) 이기영, 1975 『인왕반야경과 호국불교』 『동양학』5, p.511.

터 금릉에 머물면서 궁내의 태극전과 광택사에서 『인왕경』을 강의하여 황제와 황실, 관료들이 계율의 모범을 숭상해 그의 법을 받았다.<sup>12)</sup>

그런데 『인왕경』의 강경 사실은 이렇게 진나라 대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수나라와 연계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수 양제가 왕자시절 淮海지방의 총수인 쑤왕으로 임명되어, 지의의 풍모를 듣고 그를 초청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개황 11년(599) 11월 23일에 양주총관의 사찰에서 베풀어준 천승회에서 지의가 율의법을 내려 주자, 지의에게 智者大師의 호를 준 것이다.<sup>13)</sup> 이후에도 수 양제는 천태산에 국청사를 세우게 하는 등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sup>14)</sup>

그런데 수 유학승인 원광, 지명, 안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천태지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원광이 이 법회의 상수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결사표」의 작성 등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진의 금릉에 있을 때 지의의 강설을 접한 것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원광이 진에 들어간 25세는 585년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sup>15)</sup> 그가 금릉에 머물러 있을 무렵인 진나라 지덕 3년(585)에 천태 지의가 금릉에 와서 5년 동안 靈曜寺, 太極殿, 光宅寺에 머무르면서 『대지도론』, 『인왕반야경』, 『법화경』을 강의하였으며, 이미 31세 때인 568년에 스승 혜사선사의 명을 받고 금릉으로 가서 이듬해부터 瓦官寺에 머물면서 8년 간 『법화경』과 『대지도론』을 강설한 바 있었다. 또한 고구려의 파야가 이 때 금릉에서 천태지의의 강의를 듣고 천태

12) 『속고승전』 권17, 「수나라 국사 지자 천태산 국청사 석지의전」.

13) 『속고승전』 권17, 「수나라 국사 지자 천태산 국청사 석지의전」.

14) 『속고승전』 권19, 「당나라 천태산 국청사 석관정전」.

15) 신중원, 1991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사상의 재조명』, 신라문화계 학술논문집12 ; 최연식, 1995 「원광의 생애와 사상-『삼국유사』 「원광전」의 분석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12 ; 박광연, 2002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43 ; 박미선, 1998 「신라 원광법사의 여래장사상과 교화활동」, 『한국사상사학』11 ; 박미선, 2005 「원광의 점찰법회와 삼계교」, 『한국사상사학』24 참조.

산으로 찾아가서 수행하고 있음이 참고된다.<sup>16)</sup>

지명이 진에 간 585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천태 지의가 금릉에 머물면서 『인왕경』 등을 강경한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 계행이 훌륭한 사람이었으므로 천태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며, 이미 大德에 제수되어 있었으므로 그 역시 이 법회에 간여하여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안함은 601년에 국가에서 선발하는 국비유학승으로 수나라에 유학을 가게 되었다.<sup>17)</sup> 그는 수에 있으면서 10승의 관법과 『법화현의』의 깊은 의미를 꿰뚫을 정도로 천태 지의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10승의 비법은 『마하지관』에 나오는 10종의 관법을 말한다. 여기서 10은 관행을 성취시켜 수행자를 果地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1. 觀不思議境, 2. 發眞正菩提心, 3. 善巧安心止觀, 4. 破法遍, 5. 識通塞, 6. 道品調適, 7. 對治開助, 8. 知次位, 9. 能安忍, 10. 無愛法이다. 또한 현의란 일반적으로 현묘한 도리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앞의 십승비법과 관련시켜 천태 대사의 『법화현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법화현의』는 전 10권으로, 『법화경』의 경의 제목{經題}을 해석함으로써 경의 요지를 개괄한 것이다.<sup>18)</sup> 그러므로 그 역시 국비 유학승으로 『인왕경』의 호국경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학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에 귀국하여 613년의 법회에 원광과 함께 가장 크게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신라에서 『인왕경』을 강설하는 호국법회를 개설한 것은 천태 지의의 영향을 받은 진과 수에 유학하였던 승려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613년의 법회가 있는 지 8년 후인 진평왕 43년(621)에 신라는 새로이 당나라와 외교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 때 주목되는 내용은 선덕여왕 5년(636)에 개최된 인왕백고좌법회와 동왕 14년(645)에 완공된 황룡사 9층

16) 『속고승전』 권17, 「석지월전 파야전」.

17) 『해동고승전』 권2, 「안함전」.

18) 장휘욱, 1991 『해동고승전 연구』, 민족사, p.206.

목탑의 건립이다.

636년의 법회는 선덕여왕이 병이 들어 의약과 기도가 효험이 없으므로, 황룡사에 백고좌회를 설치하여 『인왕경』을 강경하고 백 명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한 행사로서,<sup>19)</sup> 『인왕경』 「호국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의 구성에 대한 의미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 고구려 바 있다. 위기에 처한 신라가 실추된 선덕여왕의 권위를 만회하고, 백성들에게는 一統三韓의 염원을 발원시킨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탑의 조성경위는 선덕여왕 12년인 643년에 당에서 귀국한 자장이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울 것을 건의하여 645년에 준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9층 목탑의 조성사실에 대하여 몇몇 새로운 견해가 나와 있다.

하나는 이 탑의 구성에 대한 발의가 이미 안흥(안함)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는 것으로, 안함 등이 장안의 대흥선사 사리탑을 보고 와서 이를 모델로 9층탑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sup>20)</sup>

또 하나는 근래 실제 황룡사의 탑지 조사결과를 원용하여 9층 목탑의 조영과정을 탐구한 연구에 의하면, 9층 목탑은 자장의 건의 전에 이미 목탑의 조영계획을 가지고 조영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층 목조건축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족으로 기단 축조만 한 후 더 이상의 공정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던 터에, 자장의 건의로 백제의 아버지를 초청하여 9층 목탑을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9층 목탑의 조성을 발원한 안함의 역할은 재평가해야 한다는 앞서의 논의는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1)</sup>

19) 『삼국사기』 권5, 선덕왕 5년 3월.

20) 신종원, 1992 「안흥과 신라불국토설」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pp.244~245. 신종원은 안흥으로 쓰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사료 외에는 안함으로 통일해서 쓰고자 한다. 또한 이 둘을 별개의 인물로 본 권덕영의 견해(1987 「삼국시대 신라구법승의 활동과 역할」 『청계사학』4)가 있으나, 신종원의 위의 책, p.235 주8에서 상세한 비판을 통해 동일인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황룡사 9층 목탑의 구성에 대한 건의는 자장이 하였지만 공사를 김용춘이 감독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조성사업은 곧 국왕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왕경』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왕의 호법’활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1)</sup>

이들의 견해를 따르다면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황룡사 9층 목탑의 구성은 안함의 건의에 의해, 『인왕경』의 정신에 부합하여, 수의 대흥선사 사리탑을 본 따 9층탑을 세워, 신라가 이웃나라로부터 말미암는 재난을 누를 수 있다고 하므로 기반공사까지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장이 귀국하여 탑의 조영을 건의하였고, 백제의 아버지를 초청하여 김용춘이 감독하므로써 완공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인왕경』의 정신과 안함의 역할이다. 이는 곧 613년과 636년의 백고좌법회를 주도하였던 수유학생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와 당이 교체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회 역시 수 유학생들의 주도로 행해졌을 것이며, 635년에 당에서 귀국한 명량도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당나라의 경우도 초기의 불안정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인왕백고좌회를 열고 있다. 즉 武德 年間(618~626)과 정관 3년(629)에 열어 매월 개설하게까지 하고 있다. 또 정관 17년(643)에도 개설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sup>22)</sup>

특히 자장은 당에 유학하여 당 태종과 만나 많은 것을 협의하고, 대장경 등 많은 서적과 불교 용품들을 가져와 불교계를 일신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구유식의 세대로서 현장의 신유식이 나오기 전에 당에 유학하고 있어 구마라습과 안혜, 진제 등의 舊譯으로 불리는 양과 진, 수대에 역

21) 양정석, 2004 『황룡사의 조영과 왕권』, 서경, p.169.

22) 남동신, 2001 『신라 중고기 불교치국책과 황룡사』 『신라문화계학술발표회논문집』22, p.26.

23) 권기중, 앞의 논문, pp.142~143.

출된 경전들을 텍스트로 하여 수학하였던 인물이다. 즉 舊唯識을 수학한 수대의 유학승들과 그 사상적 맥을 같이 한 것이다.<sup>24)</sup>

그런데 645년 현장이 천축에서 중국으로 귀환하면서 새로운 경전 번역의 소식이 전해지자, 신라 승들은 西學에 열심이어서 원효와 의상도 현장의 新唯識을 배우기 위해 당에 유학하려 할 정도였다. 이들의 유학 과정의 어려움은 원효의 고분에서의 오도이야기를 낱게 하였고, 의상은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병합한 후인 661년에야 당에 갈 수 있었다. 이미 당에 유학해 있던 원측, 신방 등이 현장의 신유식을 받아 들여 새로운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다.

### Ⅲ.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으로의 변화와 신라 불교계의 행보

#### 1. 나당연합과 신라 승들의 활동

자장의 당 유학에 이어 김춘추의 대당외교로 나당 연합은 구체화되어 졌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경흥, 임윤, 지의, 원효 등이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지의는 평시에 문무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sup>25)</sup> 임윤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軍師로서 사신역을 담당하고 있었다.<sup>26)</sup> 원효는 문무왕 2년(662)에 군사작전상 비밀리에 작성된 암호문서의 의미를

24) 대표적인 예로 『섭대승론』의 수학을 들 수 있다. 원광이 장안에서 11년간 섭론 연구가로 활약하였다는 것과 자장이 머물렀던 장안의 승광별원이 담천이 머물면서 북지섭론학을 개척한 섭론연구의 중심사찰이었으며, 자장은 귀국 후 섭론을 강설한 바도 있다. 남동신, 1992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76, p.15.

25) 『삼국유사』 권2, 「문호왕 법민」.

2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하.

해독해 주어 위기에 처한 신라군을 구해 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sup>27)</sup>

제일 주목되는 인물은 경흥이다. 그는 문무왕이 유언으로 국사를 삼으라고 할 정도였으므로, 문무왕의 재위기간 동안 매우 비중있는 활동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생애와 관련하여 알려져 있는 것은 웅천주인으로 水氏 혹은 木氏라는 사실이다.<sup>28)</sup>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언급이 없으므로, 이 간단한 내용으로 추정해 본다면 그는 지역적으로 백제와 관련된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웅천주와 관련하여 이미 활동하고 있던 인물로서 현광과 연광이 있었다는 점이다. 현광을 단지 웅천주에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사료에 신라 승으로 기재된 것은 백제 승의 잘못일 것으로 보고 있다.<sup>29)</sup> 그러나 그가 신라 승으로 표기된 것은 신라와 연관있는 승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을 경흥과 연관지어 본다면, 현광-연광-경흥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웅천주에서 신라 승으로 활동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로 현광과 연광은 귀국하면서 신라와 유관한 신라승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현광은 남악 혜사(514~577)의 제자로 『법화경』 「안락행품」을 중심으로 배운 바 있다. 혜사의 입적 후 귀국하였는데, 오는 길에 용궁에 들어가 7일간 경을 설하고 돌아 온 것으로 되어 있다.<sup>30)</sup> 또한 연광은 중국에서 천태 지의에게 수학 후 진평왕대(579~632)에 귀국하였는데, 수에서 귀국하던 뱃길에 용궁으로 안내되어 용왕에게 『법화경』을 강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sup>31)</sup> 이들이 귀국 길에 바로 웅주로 가지

27) 『삼국유사』 권1, 「태종춘추공」.

28) 『삼국유사』 권5, 「경흥우성」.

29) 김영태, 1983 「삼국시대의 법화수용과 그 신앙」 『한국천태사상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pp.19~22 ; 조경철, 1999 「백제의 지배세력과 법화사상」 『한국사상사학』12, p.16 주64 ; 길기태, 2006 「백제 사비시대의 불교신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1 주11에서 백제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30) 『송고승전』 권18, 「진신라국현광전」.

31) 『홍찬법화전』 권9(大正藏 51권).

않고 중간에 들렀다고 하는 곳이 신라와 유관한 지역이 아닐까 한다.<sup>32)</sup>

진평왕대라고 할 수 있는 622년을 전후하여 당에서 귀국하는 유학생 및 유학생들은 대개 신라선박에 의지하여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승들조차 신라 사신이나 신라 送使에 의존하여 귀국하거나 신라에 머물다가 돌아가기도 하였던 것이다.<sup>33)</sup> 따라서 연광은 신라 선박에 의존해서 귀국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용궁 운운의 내용은 신라와 유관한 곳을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연광이 중국 유학 당시 원광이나, 지명과 같은 신라 승들과의 교류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모두 천태 지의의 영향을 받은 구유식에 기반을 둔 점에 서이다. 때문에 그들은 웅천주로 돌아가 교화를 폈지만, 신라와 연관되어 있었던 신라 승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현광, 연광과 경흥은 웅천주와 관련이 있는 이들로서 신라국인으로 기록된 공통점이 보인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광과 연광은 『법화경』에 정통한 해외파로서, 경흥의 학문 성격상 그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지역상으로도 사제 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셋째로 법흥왕이 대통 원년에 양 무제를 위하여 웅천주에 세웠다는 대통사의 존재이다.<sup>34)</sup> 현재 이 사찰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당연히 백제에서 세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광, 연광, 경흥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활동으로 볼 때, 그 연원은 대통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sup>35)</sup>

32) 후삼국시기 중국에서 귀국하는 선사들을 각기 자국으로 유치하여 인심을 귀복 하려 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3) 타무라 엔초, 노성환 역, 1997 『고대 한국과 일본불교』, pp.125~129 ; 김현구, 1983 『日唐관계의 성립과 羅日동맹』 『일본서기』 “김춘추의 渡日” 기사를 중심으로. 『김준엽교수화갑기념 중국학논총 : 사학』, p.565.

34) 『삼국유사』 권3, 『원중흥법 엄축멸신』.

35) 대통사를 백제의 사찰로 보고 쓴 논문으로 조경철, 2002 『백제 성왕대 대통사 창건의 사상적 배경』 『국사관논총』98이 있다.

여하튼 이들은 신라가 나당연합을 이루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동안 신라로의 人心 歸服과 같은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나당전쟁과 신라 불교계

신라와 당과의 밀월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은, 백제 멸망 후 문무왕 3년인 663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당은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삼고, 신라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것은 신라를 당이 통치하는 일개 지방으로 편속한 것이고 신라왕을 일개 지방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문무왕과 부여융의 화친 문제라든가, 문무왕 10년 신라와 백제 간에 경계확정 문제에 있어서도 당은 신라에게 660년 이전의 백제 영토를 전부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나당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옛 영토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에 의한 신라의 지배의도가 확실해지면서 적대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신라는 670년 고구려 부흥군과 당나라와의 전투에 1만 명을 보내어 지원하였고, 그 해 7월부터 당이 지배하고 있던 백제의 고지를 대대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당나라 행군총관 설인귀는 서신을 보내 당에 반역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이에 신라는 671년 「답설인귀서」에서 당태종이 백제와 고구려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과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평안토록 하고자 한다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치는 과정에서 치루었던 고난을 상세히 언급하고, “당이 선박을 수리하면서 겉으로는 왜국을 정벌할 것이라고 핑계를 대나 사실은 신라를 치고자 한다”고 하며 토사구팽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상황에서 의상이 당에서 귀국하면서 가져온 당군의 침입이라는 급보는 신라 조정으로 하여금 당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신라의 주체

3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11년조.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김친존에 의해 추천된 명랑이 이전의 인왕백고좌 법회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호국법회를 열어 당군의 침입을 저지한 것이다. 명랑은 당과의 대결에 있어 문두루비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관정경』 권7 「伏魔封印大神呪經」에 의거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유가명승 12인과 함께 『금광명경』의 내용에 따라 호국기도회를 연 것이다. 이 때 명랑이 참고하였던 『금광명경』은 수나라의 寶貴 등이 역출한 『합부금광명경』으로 원효에 의해 8권의 주석서까지 나온 경전이였다.<sup>37)</sup>

명랑은 당과의 대결에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대에 역출된 『금광명경』을 활용하여 호국법회를 열므로써 당과의 대결구도를 확실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원효는 671년 『판비량론』을 저술하여 당과의 힘겨운 대결을 하고 있던 신라인들을 고무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현장법사의 귀환 이후 당 태종의 환대와 則天武后로 이어진 역경사업의 융성으로, 새로이 역출된 佛典에 대한 높은 자긍심이 넘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효는 『판비량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신구유식의 내용 전체를 꿰뚫고 있으면서 현장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불교학자들의 주장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명쾌히 짚어 낸 것이다.<sup>38)</sup>

이는 원효가 해동 신라인으로 인도는 물론 중국에도 유학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불전 해석보다도 앞선 식견을 보여줌으로써 신라인의 자긍심을 높였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그는 후대에 “분황의 진나”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다.<sup>39)</sup> 명랑은 632년에서 635년까지 당에 유학한 구유식

37) 김상현 輯, 1994 『輯逸금광명경소』 『동양학』24, p.260 ;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불교계」 『불교학연구』12, pp.247~248. 최연식은 명랑이 중국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용궁에서 받아 온 비법이 『금광명경』이 아닐까 해석하고 있다.

38) 김성철, 2003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지식산업사, pp.18~22.

39) 『삼국유사』 권3, 「원종홍법 염축멸신」.

의 세대이고,40) 원효 역시 구유식에 기반을 두고 신유식을 받아들였으며, 원측의 경우에도 구유식에 기반을 두고 현장의 신유식뿐 아니라 현장 사후 인도에서 계속 수용되고 있던 불교사상의 경향에도 주목하여 독특한 서명학과를 형성하고 있다.41) 그렇다면 이들은 원광 이래 수 유학생들과 학적 기반과 함께 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금광명경』의 주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선 명량은 『금광명경』으로 호국법회를 지내고 있고, 원효는 『금광명경소』, 『금광명경의기』를, 원측은 『인왕반야경소』를 저술하고 있지만, 그의 제자 도증이 『천태산지자대사별전』을 저술하고 있다.42) 그런데 『금광명경』은 천태 지의에 의한 주석서로 인해 법상종에서 보다는 천태종에서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43) 이는 신라의 명량, 원효,44) 원측, 그리고 시대를 조금 내려와 도증, 태현45) 등이 유식학자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그 학적 기반은 수대 유학생들의 전통을 이어, 그 기반 위에서 수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40) 『삼국유사』 권5, 「명량신인」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신종원은 명량이 자장의 누이 남간부인의 아들인 점을 고려하여 문무왕대에 귀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원, 2004 『삼국유사 새로읽기(1)』, 일지사, p.133.

41) 남무희, 2005 「원측의 생애와 유식사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42) 안계현, 1982 『한국불교사연구』, 동화출판공사, pp.66~68. 이러한 내용 외에도 『금광명경』에 대해서는 도륜의 『금광명경약기』, 경흥의 『금광명경약찬』, 태현의 『금광명경고적기』가 있다.

43) 김상현, 1976 「고려시대의 호국불교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pp.40~42 ; 최연식, 앞의 논문, p.248.

44) 김상현, 2000 『원효연구』, 민족사, p.90. 『삼국유사』 권5, 「낭지승운 보현수」에 의해 원효는 낭지에게 『법화경』을 배운 것으로 보고 있다.

45) 태현은 『금광명경』으로 호국법회를 지내고 있고, 『금광명경고적기』 4권, 『금광명경료간』 1권의 주석서가 있다. 이러한 영향은 고려의 의통이 중국에서 강의한 것을 제자 사명 지레가 필록 수정한 『금광명경문구기』와 『금광명경현의습유기』에서도 보이고, 「칠장사혜소국사비문」에는 고려 문종 2년인 1048년 5월에 왕사 정현이 문덕전에서 『합부금광명경』을 강하고 기우한 사실이 전하고 있어, 그 명맥이 고려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당전쟁으로 인한 신라의 정황은 당과 관련되어 있던 친당파는 물론 당 유학승들이 운신하기 어려운 상황도 함께 만들어 냈다고 생각된다. 즉 의상의 경우 당나라 유학승인 점과 화엄종에 대한 생경감이 겹쳐 왕경인들의 냉대로 낙산을 거쳐 소백산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sup>46)</sup> 반면 원측은 당에 있으면서 나·당 전쟁 중에 종남산 운제사 근처에서 671년부터 678년까지 8년 간이나 칩거하고 있어야 하였다.<sup>47)</sup>

결과적으로 신라의 승리가 친당파에 대한 척결의 정국을 더욱 부채질하였고, 당에 유학하였던 왕화상 혜통이 역모에 연루될 뻔한 사건을 겪은 것에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sup>48)</sup> 그리고 문무왕대에 활약을 하였던 경흥의 경우에도 그의 출신 때문에 제약을 받아 國老로 되었다고 보고 있으나,<sup>49)</sup> 그의 저술에 나타나는 신유식에 가까운 경향이 친당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sup>50)</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선왕의 유언이기는 하였지만 신문왕이 국사로 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신라는 나당 전쟁기에 일본이 신라의 후방에 있으면서 책동을 할까 우려하여 매우 자주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이 때 신라에서는 신라 승들의 저술을 일본에 전해주는 등 문화적 공여로서 일본이 신라 편을 들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하였다고 생각된다. 668~700년까지 신라가 27회, 일본이 11회의 사신을 보내 서로 오가고 있는데,<sup>51)</sup> 일본은 사절의 파견 때 학문승을 파견하여<sup>52)</sup> 신라불교를 배워오게 하였으므로, 이 시기를

46) 김복순, 2005 「신라 중대의 불교」 『신라문화』25, p.179.

47) 남무희, 2002 「원측의 생애복원과 그의 정치적 입장」 『한국고대사연구』28, p.120.

48) 『삼국유사』 권5, 「혜통행릉」.

49) 한태식, 1991 「경흥의 생애에 관한 재고찰」 『불교학보』28, pp.11~15 ; 노중국, 2003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pp.362~363.

50) 경흥은 성덕왕대에 당에서 들어온 『최승왕경』에 대해 승장의 『최승왕경소』와 함께 『금광명최승왕경술간』이라는 疏를 낸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51) 일본에서는 신라사 김동엄 일행에게 문무왕과 김유신에게 각각 무역선을 한 척씩 선물하기까지 하고 있다. 김유신과 원효와의 관계로 볼 때, 일본에 원효의 저술을 많이 보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학문승의 시기라고까지 하고 있다.<sup>53)</sup>

신라와 일본의 승려 간의 교류는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일찍부터 이루어진 바 있다. 즉 608년 日文(僧旻) 등 4명의 유학승과 高向玄里 등 4명의 유학생이 수로 유학하였다. 이들 가운데 귀국 사실이 확인되는 이는 倭韓福因이 622년에, 日文(僧旻)이 632년에, 請安과 高向玄리가 640년에 돌아온 것이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신라 사신을 따라 귀국하거나 신라 送使에 의해 귀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54)</sup>

이는 신라의 원광이 「결사표」를 보내는 시기에 수에 들어갔다가 수당이 교체되는 혼란기를 지나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가 시작되는(621) 이듬해부터 신라 사신 내지 송사를 따라 귀국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請安과 高向玄理는 645년의 대화개신의 주역으로 國博士로 활약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이 수나라에 들어갔다가 당나라 초에 귀국하였다는 것은 구유식의 시대에 수와 당에 유학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라의 원광, 자장, 명량, 원효와 같은 학문적 기반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신라에 학문 승들이 파견되었고, 신라의 많은 저술들을 배웠으며, 특히 원효의 저술을 중히 여겨 그의 저술이 일본에 전해지자, 지속적으로 애독되어지고 주석을 달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sup>55)</sup>

52) 684년 觀常, 靈觀, 687년 明聰, 觀智, 智隆, 693년 辨通, 神叡, 692년 山田史御形이 그들이다. 연민수, 2004 「7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왜국의 대한정책」 『신라 문화』24, pp.62~63.

53) 타무라 엔쇼, 노성환 역, 1997 앞의 책, p.134.

54) 622년 倭韓福因은 신라사신 智洗爾를 따라 귀국하고 있고, 日文은 25년 만인 632년에 高表仁을 따라서 신라를 거쳐 신라의 送使에 의해 귀국하고 있다. 또한 高向玄里도 33년 만인 640년에 신라를 거쳐 신라의 送使에 의해 귀국하고 있다. 혜은도 30년간의 중국생활을 마치고 신라 송사를 따라 귀국하고 있다. 타무라 엔쇼, 노성환 역, 앞의 책, pp.125~129.

55) 이기동, 1992 「설중엽과 淡海三船의 交驩」 『역사학보』134·135합집 ; 최연식, 2004 「일본 고대화엄과 신라 불교」 『한국사상사학』21, p.12.

#### IV. 나당관계 재개 이후 안함의 평가와 사료의 착종

성덕왕대에 나당관계가 재개되면서 성덕왕 3년(704) 3월에 당나라에 갔던 김사양이 돌아와 『최승왕경』을 바쳤다고 하는데,<sup>56)</sup> 이 경은 703년에 당의 의정이 신역한 『금광명최승왕경』이다. 이것이 『금광명경』의 수입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으로, 신라에는 이미 수대 역출의 『금광명경』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보았다.

이렇게 당과의 교섭이 재개된 성덕왕대에 사신이 의정의 신역경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신라에서 신역 『금광명경』의 내용에 의거하여 호국행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많이 해소되어 나타난 양상이라 생각된다. 결국 문무왕 후기의 小康에서 성덕왕 말기의 태평으로 변화하는 시기에<sup>57)</sup>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텍스트의 교체 즉, 수대에 역출된 『금광명경』을 당대에 역출된 『금광명최승왕경』으로 바꾸어서 호국행사를 벌임으로써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로인 경흥에 의해 이 경의 주석서인 『金光明最勝王經述贊』 등이 저술되었다는 것은<sup>58)</sup> 그가 이 경을 강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을 정리한 내용일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전에 수 유학파로 호국법회를 주도하였던 안함에 대한 평가에 있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안함에 대한 연구는 신중원에 의해서 철저히 해부되었다.<sup>59)</sup> 그는 안함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사료해석 문제와 귀국 후의 그의 활동을

56)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3년.

57) 이기동, 1999 「성덕대왕 신종 조성의 역사적 배경」 『성덕대왕신종 종합논문집』, 국립경주박물관, pp.35~38.

58) 경흥은 『금광명최승왕경술찬』 5권뿐 아니라 『금광명최승왕경약찬』 5권, 『금광명최승왕경소』 10권을 저술로 남기고 있다.

59) 신중원, 앞의 책, pp.232~249.

간과한데서 온 것으로 보았다. 즉 안함과 안홍의 동일인 여부와 중국 유학이 진흥왕 대인지 진평왕 대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증원은 안함과 안홍은 동일인이며 진평왕 대의 인물로 보았다. 따라서 진흥왕대의 사료는 착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신라 불국토설의 창시자가 안함 입에도 불구하고 자장에게 그 공이 돌려졌다고도 보고 있다.

먼저 안함과 관련된 사료를 일별해 보도록 하겠다.

- 4) 그는 진평왕 22년(600)에 고승 혜숙과 도반이 되기로 약속하고, 뗏목을 타고 이포진으로 가는 도중 섬도 아래를 지나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나 뗏목을 되돌려서 물가에 대었다. 이듬해(601)에 (임금이) 교지를 내려 法器를 이룰 만한 자를 뽑아 중국에 파견하여 학문을 닦게 하고자 하였을 때, 마침 법사가 명을 받들어 가게 되었다. 이에 신라 사신과 동행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멀리 중국으로 갔다.<sup>60)</sup>
- 5) (진흥왕) 37년에... 안홍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구법하였다. 호승인 비마라 등 2인의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승만경』 및 佛舍利를 바쳤다.<sup>61)</sup>
- 6) 석안함...천왕이 불러 친히 보고 크게 기뻐하여 칙명으로 대흥선사에 머물게 하였다. 단시일 내에 깊은 뜻을 훤히 깨달았다...십승의 비법과 (법화)현의, 진실한 문장을 5년 동안에 두루 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뒤 27년(605)에 우전사문 비마라진제, 사문 농가타 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서역의 호승이 직접 계림으로 온 것은 대개 이때부터였다.<sup>62)</sup>
- 7) 최치원이 지은 「의상전」에 말하기를 “의상은 진평왕 건복 42년(625)에 태어났다. 이 해에 동방의 성인 안홍법사가 서역의 세 사람의 삼

60) 『해동고승전』 권2, 「안함전」.

61) 『삼국사기』 권4, 진흥왕 37년조.

62) 『해동고승전』 권2, 「안함전」.

장과 중국 승려 두 사람과 함께 당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하였다. 주석하여 말하기를 “북인도 오장국의 毘摩羅眞諦는 44세, 農加陀는 46세, 마두라국의 佛陀僧伽는 46세였다. 52개 국을 경유하여 비로소 중국에 이르렀고, 드디어 신라에 왔다. 황룡사에 머물면서 『梅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하였는데, 신라 승 曇和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 얼마 뒤에 중국 승려들이 글을 올려 중국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청하므로 왕은 허락하여 보냈다” 그 안홍은 아마 (안함)화상일 것이다.<sup>63)</sup>

위의 사실들을 정리해 보면, 안함은 수에 유학하였다가 서역 출신 삼장 법사 3인인 북천축 오장국의 비마라진제, 농가타, 마두라국의 불타승가와 중국 승려 2인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이들은 황룡사에 머물면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추정되는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번역해 내고, 신라승 담화가 筆受를 하였다. 이 일은 王世儀 방문사건 만큼이나 신라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을 일이었다. 중국에서 사신이나 승려의 내방은 간혹 있는 일이었지만, 인도승려가 신라에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경전의 번역까지 이루어지고 신라승이 필수까지 하였으므로, 신라사회는 이를 계기로 중국어는 물론 범어까지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사에서 본다면 버리기에는 아까운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의 귀국에 대해서는 진흥왕 37년인 576년의 『삼국사기』설과 진평왕 47년인 625년의 최치원설, 그리고 진평왕 27년인 605년의 『해동고승전』설 등 다양한 견해가 나와 있다. 이는 안함이 진평왕 23년인 601년부터 27년인 605년까지 신라의 국비 유학승으로 수에 유학한 내용을 착중시켜 최치원에 의해 채록되고, 『삼국사기』에 실려진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왜 안함은 이렇게 진흥왕대에 중국에 유학한 것으로 나오는

63) 『해동고승전』 권2, 「안함전」.

등 사료가 착중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수·당의 교체에 따른 신라 내부에서의 정국의 변화에 따른 문제가 안함에 관한 기사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서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료로서 남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9)의 최치원이 「의상전」을 지으면서 안흥(안함)이 수가 아닌 당에서 귀국하였다고 한 것은, 동방의 성인으로서까지 평가한 그에 관한 기사를 버릴 수는 없었던 데서 나온 현상이었을 것이다. 즉 안함의 친수적인 경향이 당에서 사환까지 한 그로서는 신라가 당과의 외교가 긴밀한 상황에서 문제로 삼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기록의 조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7)의 김부식이 안흥법사의 사실을 수나라라고 적기하고 있으면서도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 진흥왕조에 넣은 의도는 최치원의 기록을 보았을 그가 선택한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신라 조정에서는 당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면서 안함을 내세울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 이유는 안함이 쓴 참서는 수나라의 발흥과 천하통일을 예언하고 그 길상의 부침을 설한 참위서를 본떠 만든 것으로, 수 문제의 불교 흥륭책과 비슷한 참서의 내용<sup>64)</sup> 당의 치하에서 용납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안흥(함)의 참서로 알려져 있는 『동도성립기』는 원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정국의 변화로 직설적인 내용을 감추기 위해 『동도성립기』라는 참서로 만들어 전해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안함이 귀국 후에 역경사업을 벌인 것은 수나라의 大興善寺의 譯經 체제를 모방한 것으로, 수 문제 때 대흥선사에는 북천축 烏菴國 삼장 毘尼多流支, 那連提耶舍, 사나굴다 등이 머물면서 역경에 참여하였는데, 이들과 함께 중국에 왔던 북천축 오장국 승려들 가운데 일부가 신라에 와서 역경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sup>65)</sup>

64) 신중원, 위의 책, p.238.

65) 신중원, 위의 책, p.235.

안함은 선덕왕 9년(640) 9월 23일에 만선도랑에서 62세로 입적하였다. 한림인 설모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지었다. 그런데 「고선사 서당화상비」에 원효의 상족으로 만선화상이 나오고 있다. 만선도랑과 만선화상이 같은 이름이라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으나, 안함과 원효의 관계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하나를 제시해 두고자 한다.

## V. 맺 음 말

신라에서 본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여 사회사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원광의 서학 이후로 진평왕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평왕대는 진, 수, 당의 교체가 수십 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나므로 해서, 이 시기 중국에 유학하였던 승려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정국에 휩쓸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당과의 외교관계가 순탄했을 때와는 달리 나당전쟁이라는 상황에 처해짐으로 해서, 원광과 안함, 자장 등을 계승한 명랑, 원효 등의 불교계 지식인들은 신라의 자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행보를 함께 하였다.

그러나 당과의 관계가 다시 재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서의 등장과 후대의 사료의 착종과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추정된다. 수·당의 교체정국과 나당연합에서 나·당전쟁, 나당관계 정상화라는 변수 속에서, 신라인들의 자존의식이 당대의 고승들의 행보에 잘 드러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들은 신라를 호위하는 사상적인 축을 잘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해동고승전』, 『수서』, 『속고승전』, 『송고승전』, 『홍찬법화전』.

권기중, 2000 「수당시대 불교사상과 정치권력-『인왕호국반야경』을 중심으로」 『역사상의 국가 권력과 종교』, 일조각.

권덕영, 1987 「삼국시대 신라구법승의 활동과 역할」 『청계사학』4.

길기태, 2006 「백제 사비시대의 불교신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복순, 2005 「신라 중대의 불교」 『신라문화』25.

김복순, 2006 「원광법사의 행적에 대한 종합적 고찰」 『신라문화』28.

김상현, 2000 『원효연구』, 민족사.

김상현, 1976 「고려시대의 호국불교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김성철, 2003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 연구』, 지식산업사.

김수태, 2004 「삼국의 외교적 협력과 경쟁」 『신라문화』24.

김영태, 1983 「삼국시대의 법화수용과 그 신앙」 『한국천대사상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김현구, 1983 「日唐관계의 성립과 羅日동맹-『일본서기』 “김춘추의 渡日” 기사를 중심으로-」 『김준엽교수화갑기념 중국학논총 : 사학』.

남동신, 1992 「자장의 불교사상과 불교치국책」 『한국사연구』76.

남동신, 2001 「신라 중고기 불교치국책과 황룡사」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 논문집』22.

남무희, 2002 「원측의 생애복원과 그의 정치적 입장」 『한국고대사연구』28.

남무희, 2005 「원측의 생애와 유식사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노중국, 1981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 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28.

박광연, 2002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43.

박미선, 2005 「원광의 점찰법회와 삼계교」 『한국사상사학』24.

신종원, 1992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 신중원, 2004 『삼국유사 새로읽기(1)』, 일지사.
- 안계현, 1982 『한국불교사연구』, 동화출판공사.
- 양정석, 2004 『황룡사의 조영과 왕권』, 서경.
- 이기동, 1992 「설중엽과 淡海三船의 交驩」 『역사학보』 134·135합집
- 이기백, 1986 「황룡사와 그 창건」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 이기영, 1975 「인왕반야경과 호국불교」 『동양학』5.
- 장휘옥, 1991 『해동고승전 연구』, 민족사.
- 조경철, 1999 「백제의 지배세력과 법화사상」 『한국사상사학』12.
- 조경철, 2002 「백제 성왕대 대통사 창건의 사상적 배경」 『국사관논총』98.
- 최연식, 1995 「원광의 생애와 사상-『삼국유사』 「원광전」의 분석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12.
- 최연식, 2004 「일본 고대화엄과 신라 불교」 『한국사상사학』21.
-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불교계」 『불교학연구』12.
- 한태식, 1991 「경흥의 생애에 관한 재고찰」 『불교학보』28.
- 타무라 엔쵸, 노성환 역, 1997 『고대 한국과 일본불교』.

Abstract

## A Trend of Shilla Buddhism in the Era of Transformation from Sui to Tang Dynasty

Kim, Bok-so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at the Shilla buddhist monks who studied in Sui established the base of Shilla buddhism. Many of the Shilla buddhist monks went to Chin, Sui, and Tang for their studies from the end of the 6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7th century. This reflected that Shilla was more active in accepting the new trend of thought than Baekje and Koguryeo. Thus, the activities of the monks returned to Shilla contributed to the settlement of buddhism as a social thought in Shilla. Despite this fact, the studies about the role of the Shilla monks who studied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evaluation of their activities, like the evaluation of Anharm, had some problems derived from the confusion of historical documents and the confounded folk tal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need to concentrate our attention on the foreign relations of Shilla because the monks studied in foreign countries. Shilla under the king of Jinpyung from the 6th century to the 7th century experienced the frequent political changes resulted from the transformation from Chin to Sui and from Sui to Tang. Moreover, the great changes from alliance to war and from war to re-alliance between Shilla and Tang had appeared since the transformation. In short, these frequent political changes could bring about the problems above mentioned.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activities of the Shilla monks who studied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characters of Shilla buddhism during the

6th and the 7th century, in terms of the movement of buddhist society in Shilla by the change from alliance to war between Shilla and Tang. When Shilla was the under the war against Tang, unlike when it had the good relations with Sui and Tang, the buddhist intellectuals including Myungrang and Wonhyo, who succeeded to Wonkwang, Anharm, and Jajang, agreed to secure the right of independence for Shilla. However, when Shilla reopened the friendly relationships with Tang, the evaluation of the buddhist monks who studied in Sui was problematic. In addition, some problems derived from the foretelling books by Anharm and the confusion of historical documents by the author of Samguksaki and Choi Chiwon began to appear.

However, we can find the independent spirit of Shilla buddhist monks in their activities even under the frequent political changes, such as the transformation from Sui to Tang, the alliance and war between Shilla and Tang, and the reopening of friendly relationships between Shilla and Tang. In sum, they sustained the axis of the thought to protect Shilla.

**Key Words :** The transformation from Sui to Tang, The monks who studied in Sui, Buddhist society in Shilla and the change from alliance to war between Shilla and Tang, Evaluation of Anharm and the reopening of friendly relationships between Shilla and Tang, Confusion of historical documents